

치매교육 뮤지컬 시놉시스

작품명	마중		
장르	치매인식개선뮤지컬	제작사	(주)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
연락처	02-749-3175 010-8990-1868	홈페이지	www.jyes.kr
러닝타임	70분~90분		
작품 의도			
<p>고령화사회의 급격한 진입 속에서 치매 환자 역시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각은 치매 환자를 ‘인간다움’을 상실한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이처럼 치매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공포를 가지는 우리 사회의 편협한 시각을 개선하여 주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p>			
작품 특징			
<p>* 치매환자와의 공존적 가치 강조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이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할 것이다, 혹은 치매가 가족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함께 적절한 돌봄과 배려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킨다</p> <p>* 치매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극적 전개 과정에서 치매예방 수칙 3·3·3 같은 일상속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정보, 배회가능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필요성 등 치매극복과 치매 환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정보를 극중 대사, 예방송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제공한다</p> <p>* 관객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오락적 요소 결합 노년층은 물론 중장년층이 흥을 가지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유명가요 등을 극의 전개과정에 적절히 배치하여 함께 참여하고 호응하는 구조를 제시한다.</p>			
등장인물			
[정도]	아버지. 일찍 아내를 잃고 삼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움. 갈등 끝에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중 치매에 걸림.		
[혁일]	첫째. 집을 나간지 20년만에 딸과 함께 집에 돌아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재회함.
[혜주]	둘째. 배려심이 많으며 오빠 혁일과 아버지 정도의 관계를 따뜻한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킴
[혜미]	셋째. 따뜻하고 쾌활.
[이슬]	혁일의 딸.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아버지 때문에 외롭게 지내 왔으나 외가로 돌아온 후 새롭게 생긴 가족의 울타리를 중요하게 생각함.
[멀티]	경찰, 공씨(식료품 배달업자). 장발(짜퉁 전인권)
[기타]	춤과 코러스 3(상황에 따라 활용)

줄거리

정도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작은 식당을 차려 어린 삼남매(혁일, 혜주, 혜미)를 키우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고등학생이 된 혁일이 동갑나기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다, 화가 난 정도가 나무라자 혁일은 그 길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혁일이 떠난 다음 다음 정도는 약한 몸 때문에 비를 맞아 걸린 감기에도 곧바로 폐렴으로 이어지던 혁일을 걱정한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십수년째 같은 식당을 지키며 살아온 정도에게 찾아온 치매. 어느날부터인가 정도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손님들은 물론 딸과도 자주 부딪친다.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정도는 매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간다. 위태위태한 날속에 마침내 다가온 2020년, 모든 것을 망각해버린 정도 앞에 아들 혁일이 스무 살 된 딸과 함께 나타난다. 집을 나간지 20년만이다.

치매가 악화된 정도는 혁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혁일은 그런 정도가 자기를 일부러 모른체 한다고 오해한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움에 다시 떠나려는 혁일을 여동생 혜주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붙잡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는 혁일, 그런 혁일과 달리 딸 이슬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찾아온 아버지로 인해 울타리 같은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비가 오던 날 갑자기 정도가 사라지자 식구들은 그를 찾아다닌다. 정도를 찾은 곳은 예전에 삼남매가 다녔던 초등학교 정문, 그곳에서 얼이 빠진 상태로 서있는 정도는 노란우산을 든채 ‘넌 비맞으면 안돼’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다. 혜주는 어린 시절 유독 몸이 약했던 혁일을 걱정해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늘 우산을 들고 학교앞으로 마중을 왔던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준다. 그제야 혁일은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놓고 있지 않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화해하게 된다.